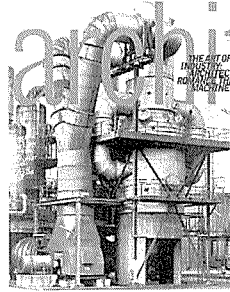


- Architecture
- Architectural Record
- The Architectural Review
- Domus
- 建築文化
- a+u
- 新建築

Architecture

1999년 6월호

건축에서의
기계미학이
현대에서
어떻게 해
석되어 나
타나는가를
특 집 으로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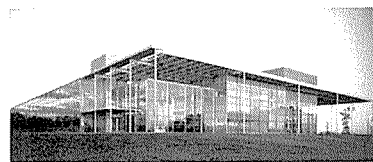


산업재료를 사용한 미술관-William Bruder의 Arizona, Scottsdale 현대미술관-이나, 건축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공장이나 연구소-Davis Brody Bond의 Valeo Thermal Systems Technical Center, Barkow Leibinger Architects의 Trumpf Laser and Logistical Center-등을 소개하였다.

■ 기계미학과 건축

Peter Behrens는 AEG 터빈 공장(1909)에서 공학을 건축의 경지까지 끌어올렸으며, 건축가의 산업에 대한 심취에 불을 붙였다. 한편, 기계미학은 이제 건물 유형을 초월하여, 공장이나 창고 뿐 아니라, 미술관, 주택 등에서 그 표현을 찾아볼 수 있으며, 고급문화나 거주성의 정의를 변형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의 건축물들이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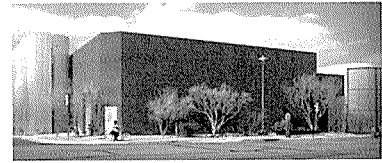
▶ Davis Brody Bond의 Michigan, Valeo Thermal Systems Technical Center



군더더기가 없는 간결한 디자인으로 최적화된 구조부재와 얇은 커튼월로만 이루어진 이 연구소는 "정원속의 기계"로 이름 붙여졌다. 유리 커튼월안에 디자인 스튜디오를 수용하며, 가는 원형 스틸 기

둥은 그리드 패턴의 루버를 지지하고 있다. 실험 연구실들은 건물 남쪽 끝부분에 달려진 유리 블록에 위치하며, 노출된 설비 시스템은 천장을 통해 밝게 빛나는 이 층 층고의 작업장 상부를 채운다.

▶ William Bruder의 Arizona, Scottsdale 현대미술관 (SMOCA)



건축가는 5개의 극장건물을 수용했던 25년 된 건물을 현대 미술관으로 탈바꿈시켰다. 기존 건물의 콘크리트 블록의 껍데기와 스테코 마감과 5개의 극장을 분리하던 내부 벽을 그대로 두고, 현대 미술관으로 리노베이션하였다. 아연도금을 한 스틸 구조물에 입구와 인포메이션 박스, 선물 상점, 그리고 사이버 카페, 조각 공원이 결합되어 있으며, James Carpenter의 조각작품이 벽의 한부분을 차지한다. 아연 도금한 스틸 패널은 하늘 빛을 반사시켰다가 점점 희미해지는데, 이렇게 공업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예술적인 제스처를 만들어 내는 것이 그의 재주이다. SMOCA는 옛것과 현대적인 것, 싸구려와 세련된 것, 공업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으며, 현대 미국미술의 예측하기 어렵고 즉흥적인 성질을 반영하고 있다.

▶ Barkow Leibinger Architects의 Stuttgart, Trumpf Laser and Logistical Center

레이저 절삭기를 생산하는 이 공장을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건축가는 대지를 읽어내는 것으로부터 강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작은 필지들의 농장부지들이 합쳐진 대지라는 점에 착안하여, 공장의 마스터 플랜은 각각의 기능에 해당하는 독립된 필지들로 짜여지는 방식으로 하였다. 생산부분과 수납부분은 교차된 블록을 연속적으로 두었으며, 그 위를 덮는 프리즘형의 긴 지붕은 멀리서 보면, 주변의 언덕의 형세와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 영국 Branson Coats Architects의 Sheffield, National

Center for Popular Music

- ▶ Barton Meyer Associates의 캘리포니아 Toro Canyon House
- ▶ Booth Hansen Associates의 시카고, Republic 창호 공장을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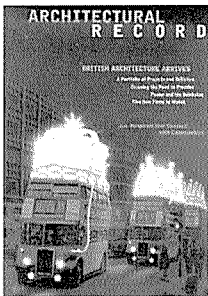
■ 실무, 기술 관련 정보

- ▶ 미국, 캐나다 지역 건축가를 위한 단체인 국립 건축 등록 협회 NCARB의 문체점
- ▶ 건물의 수직적 확장을 가능케 해주는 구조적 고안 ▶ 2차원의 드로잉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3차원 오브젝트를 다루게 된 CAD 소프트웨어의 진보 등을 다루었다.

Architectural Record

1999년 7월호

이번호는 영국 건축 특집으로 영국 건축가인 Norman Foster의 독일 의사당 리노베이션,



Chris Wilkinson의 Canary Wharf 보행자용 다리와 Stamford 역 등 최근에 지어진 대규모 프로젝트와 새로운 경향을 보이는 영국의 젊은 건축가 집단을 다루었다. 병원의 사례 연구가 실렸다.

▶ Norman Foster의 독일 의사당 리노베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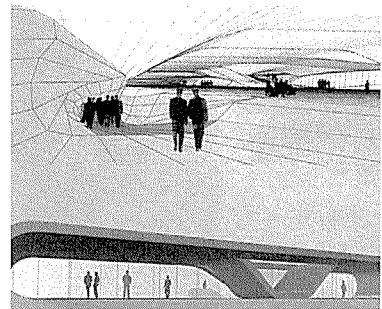
과거에 대포동 포병대를 수용하였던 역사적인 구조물이 Norman Foster에 의해 현대적인 의사당 건물로 바뀌었다. 현상 설계경기에서 당선되었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돔이 없는 평평한 지붕에 거부감을 나타내어, 유리 스틸 트러스 구조로 된 돔을 덧붙이게 되었다. 삼각뿔 모양의 배기장치가 돔의 중심부를 관통하며, 표면은 거울로 처리되어, 태양광선을 내부로 반사시킨다. 공공이 접근할 수 있는 이중나선의 램프가 돔의 내부를 감싼다. 그리고 ▶ Chris Wilkinson의 Canary Wharf 보행자용 다리와 Stamford 역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었다.

■ 영국의 젊은 건축 설계회사 5

영국 건축계는 1970년대 이후로 하이테크 건축의 영향하에 있었다. 젊은 건축가들은 이러한 전통아래에서 보다 더 구조 논리에 충실하고 명확한 구조적 표현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여기에 소개된 5개의 젊은 건축가와 설계집단-Birds Portchmouth Russum, Foreign Office Architects, Niall McLaughlin, Tony Fretton, Caruso St. John-은 이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가졌다. 공간과 분위기 표현에 집중하며, 복합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독창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 Foreign Office Architects는 변화 가능성을 포용함으로써, 복잡성을 다룬다. Iranian Cinema 프로젝트에서 그러한 것이 반영되는데, 벽이 천장이 되고, 천장이 다시 벽이 된다. 그리고 내외부 사이의 구분은 희미해진다. 그러한 조작을 통해서 FOA는 보이지 않거나, 이름 붙여질 수 없는 건물을 만들어 내며, 그것은 도시지형과 합쳐진다. 요코하마 페리 터미널은 보통 관문이 되는 기존의 건물이 아니다. 자체적으로 감기는 구조물은 내부이면서 외부인 랜드스케이프를

형성하며, 램프와 움직이는 보도는 불안한 해안과 바다사이의 경계를 만들어 낸다.



요코하마 페리 터미널

■ 건물유형연구-병원

다음에 소개되는 병원들은 디자인 스타일이나 지역적으로 다양한 특색을 가지지만 환자들의 요구에 관심을 가진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아동병원의 경우 의자나 카운터의 높이를 아이들의 키에 맞추는 등, 환자들에 대한 시각으로 병원의 조직을 맞춘다. 물리적 치료 못지 않게 입원 환자들간의 사교와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자들간, 환자와 가족간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다. 소개된 작품은 ▶ Zimmer Gunsul Frasca and Anshen의 오래건주 아동병원 ▶ Robert A.M. Stern Architects와 NBBJ의 플로리다 Celebration 종합병원 ▶ 연구와 치료를 동시에 수행하며, 정신 건강 치료에 대한 이미지를 근대화하고자 하는, Peter Pran의 뉴욕시 정신병원 ▶ Perkins & Will의 시카고 AIDS 센터 등이다.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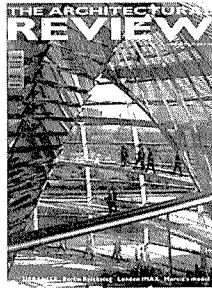
- ▶ Norman Foster와의 인터뷰 ▶ 장스팬을 위한 목재 트러스 구조를 적용한 건물 사례
- ▶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방식의 변화가 설계사무소 스태프 구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었다.

The Architectural Review

1999년 7월호

■ 디자인 리뷰

- Fumihiko Maki의 네덜란드 Groningen 시 거리 구조물 Groningen시는 예술가와 건축가들을 초청하여 도시의 거리 구조물에서부터 미술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케일의 프로젝트를 맡겼다. 도시의 연례행사인 페스티벌의 퍼포먼스를 위한 영구 구조물은 경량 구조로서, 운하를 통해 배로 견인 할 수 있도록 물에 떠 있는 파빌리온이다. 폴리에스테르 막은 원형 스틸 구조에 의해 펼쳐지며, 이중 나선 형태를 이룬다. 이 구조물은 콘크리트 바지선에 의해 지지되며, 바지선은 공연을 위한 창고와 드레스룸, 화장실 등을 수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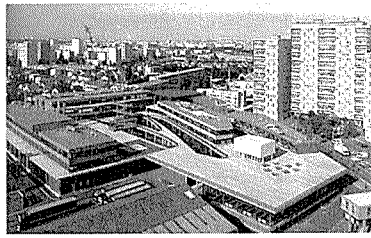
■ 공공건물

▶ Avery Associates의 영국 Waterloo 아이맥스 영화관



Waterloo 다리의 남쪽 끝에 지어진 이 건물은 영국의 가장 큰 아이맥스 영화관을 수용한다. 근처의 극장들이 블랙박스와 같이 내부지향적이어서 도시의 공공 환경으로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이 건물은 거대한 볼륨으로 도시와의 대화를 이루려 하고 있다.

▶ Massimiliano Fuksas의 Ile de France, 중등학교
1600명의 학생과 다양한 부속시설을 수



용하는 이 학교는 기술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고 있으며, Fuksas의 공업적 재료의 사용은 이러한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7m 높이의 플랫폼을 두어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데, 이것은 플랫폼의 위쪽과 아래쪽의 대비되는 두 세계를 만들어 내었다. 다양한 위치에서 잘라내어진 개구부를 통해서 아래쪽 정원, 파티오, 거리에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계획에서 결정점이 되는 북동쪽 코너에는 도서관 볼륨이 떠 있으며, 타원 형태의 오디오리움과 교사들의 사무동이 클러스터를 이루어 배치되고 볼륨 사이에 주출입구가 형성되었다.

그 외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공공건물들로서, ▶ Foster and Partners의 베를린 국회의사당 ▶ Richard Rogers의 보르도 법원 ▶ Rafael Moneo의 스페인 Murcia시 시청 ▶ Miguel Roca의 Cordova 커뮤니티센터 등이 소개되었다.

■ 인테리어 디자인

▶ Lewis의 뉴욕시, 갤러리와 오피스 리노베이션
공공건축과 도시 재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Van Alen Institute 사무실의 개조안으로서 건축주의 요구는 개인적인 사무실과 갤러리 부분을 분리해 달라는 것이었다. 북쪽 끝의 디렉터 사무실이 수납장 벽에 의해 갤러리와 구분되며, 다른 사무실들은 빛을 투과시키면서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는 반투명한 패널의 힌지가 층고 높이로 설치되었다.

그 밖에 ▶ Resolution: 4 Architecture의 뉴욕시, 첼시아, 로프트 오피스 ▶ Kazuyo Sejima의 나가노 현 주택의 인테리어가 소개되었다.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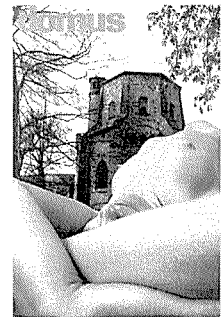
조경으로, ▶ Martha Schwartz의

Washington DC와 Minneapolis의 도시광장 ▶ Guillermo Vazquez Consuegra의 스페인 Vigo 워터프론트 산책로 등을 자세히 다루었다.

Domus

1999년 7, 8월호

이번호는 자연과 건축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정원디자인의 최근경향과 함께, 지형이나, 대지의 상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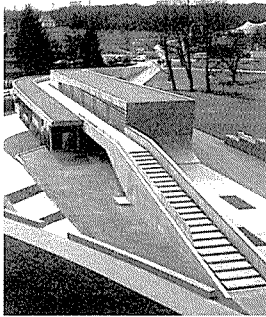
서 디자인 컨셉을 얻은 작품이나, 화장장, 공공묘지, 공원 등 자연이 프로그램의 주요소가 되는 작품, Romuald Loegler의 폴란드 Krakow-Batowice, 장례교회, Axel Schultes, Charlotte Frank의 베를린 화장장, 베니스의 공동묘지 확장 설계경기관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대규모의 도쿄 야외 조각공원의 공공조각, 1999 밀라노 디자인 박람회 등을 다루었다.

■ 정원 디자인의 최근 흐름

1960년대 이후부터, 비주류, 예술가들이 주로 정원 디자인의 부활을 위해 일해왔다. 개척자로서 Louis Le Roy, Ian Hamilton Finlay, 그리고 Bernard Lassus를 들 수 있으며, 그들의 작업방식은 현재에 있어서 전개되는 것의 광범위한 부분에 적용된다. 현재의 정원디자인의 경향은 5가지 측면, 즉 전문성, 예술적, 건축적, 시적, 자연적, 사회적 경향을 읽을 수 있다.

■ 근작소개

▶ Zaha Hadid의 독일, Weil am Rhein, LF one: 정보 파빌리언



실제 건물을 통해서 보다는 사고나 계획안을 통해서 자신의 건축을 발전시켜나가는 Hadid의 두 번째 건물로서, 첫 번째 작품인 Vitra 소방서와 비교를 하면 흥미롭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했는데, 자연을 찾아온 정원 박람회 방문객들에게는 다소 거부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었다. 예각의 모서리와 다이내믹한 형태는 Vitra 소방서와 유사하지만 보다 정적이고 부드러운 곡선이 사용되었는데, 땅위에 치는 파도와 같이, 140m 길이의 이 건물은 자갈밭에서부터 들어올려져서 길들을 만들고 가지를 쳐서 다시 땅으로 가라 앉는 형상을 갖는다. 이 건물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순수하게 비워진 공간의 탐닉에 있다. 이러한 금욕주의를 거스르는 것은 찾아볼 수 없으며, 모든 디테일은 전체의 선형성을 강조하는 데에 수렴된다.

▶ 베니스 San Michele 묘지 확장 현상설계 안

이 설계경기는 매우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현재 묘지의 가용대지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필요한 대지를 얻기 위하여 땅을 간척해야 했으며, 1860년대 만들어졌던 기존의 묘지와 역사적인 연계도 고려해야만 했었다. 15명의 다양한 세대와 문화권의 유럽건축가들이 선정되어 설계경기에 참가하였으며, 주로 제기된 주제들은 과거와 현재의 문제, 기존의 경관을 이용하여 어떻게 San Michele 석호의 새로운 랜드스케이프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었다. 참여한 건축가중, David Chipperfield, Enric Miralles,



Carlos Ferrater의 작품

Benedetta Tagliabue, Carlos Ferrater, Giorgio Lombardi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그 밖에 ▶ Bernard Tschumi의 파리 Parc de la Villette ▶ Romuald Loegler의 폴란드 Krakow-Batowice, 장례교회 ▶ Axel Schultes, Charlotte Frank의 베를린 화장장이 자세히 다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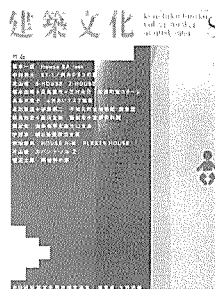
■ 기타

▶ 도쿄 야외미술관의 공공조각 Hakone와 Utsukushi-ga-hara 미술관은 연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두 개의 공공예술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공공조각의 선언서로서, 건축과 자연대지의 유기적 결합으로서 예술과 자연의 관계를 실체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 20세기의 마지막 쇼인 Milan 1999 디자인 박람회를 다루었다.

建築文化

1999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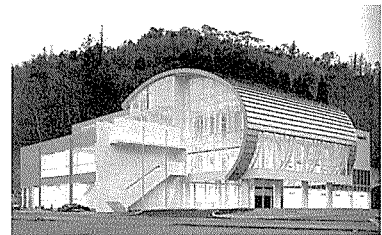
이번 호는 특집 없이 일본 작가들의 근작 소개로, 14개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소개된 작품들은 사카모토 카즈나리(坂本 一成)의 'House SA', 나카무라 이사무(中村 勇大)의 '비스듬한 테라스의 집',



키타야마 코우(北山 恒)의 S-HOUSE와 Z-HOUSE 등 주로 주택작품들이며, 키타가와라 아쓰시(北川原 温)건축도시연구소와 이토(伊藤)건축사사무소의 시라누이(不知火)미술관과 도서관 등의 작품들도 소개되었다.

■ 작품

▶ 키타야마 코우(北山 恒)의 S-HOUSE: '부부라는 단위가 주재하는 집단으로서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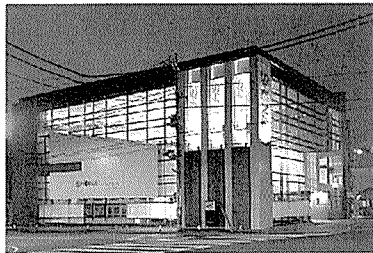


이 주택은 동경 근교의 비교적 넓은 부지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주는 치과병원을 경영하는 부부이며 거주할 사람들은 이들 부부와 그 모친, 자녀 2명, 그리고 해외에서 생활하는 여동생부부이다. 건물은 3개 층으로 되어있어, 최상층은 부부 2명만을 위한 공간으로 침실 이외에도 별도의 주방, 식당, 거실이 마련되고 거대한 쉼의실과 욕실이 마련된다. 진입층인 2층은 부부의 입장에서 보면 '객인(客人)'인 부부의 이외의 가족구성원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침대를 놓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만이 주어진 컴파트먼트(Compartment)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컴파트먼트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가구를 레일위에 설치하여 가변식으로 만들었으며, 현관 근처에는 친구들의 방문이 잦은 모친을 위해 넓은 다타미방이 마련되어있다. 1층은 가족 공용의 서재와 창고로서, 창고에는 가족 구성원의 침대 이외의 물건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이용하도록 하였고, 서재는 구성원마다 책상을 하나씩 마련하여 오피스와 같은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 키타야마 코우(北山 恒)의 Z-HOUSE: '자율적인 2개의 생활을 조정하는 공간'
건축주는 배수설비의 시공회사를 경영하

는 사람으로, 주인 부부와 그 모친 3명을 위한 주택이다. 3개 층으로 구성된 주택은 최상층이 부부를 위한 공간이며, 진입층인 2층은 반투명 유리로 4면을 구성하고 중앙부에 욕실을 두고, 주방과 식당을 두었다. 1층은 모친을 위한 방으로, 경사지를 이용하여 충분한 채광이 되도록 하였다. 부부를 위한 3층 공간은 가변벽을 이용하여 전체 공간을 3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앙부분의 채광을 위한 옥탑층의 한 부분을 독립된 침실로 계획하였다. 냉·온수가 흐르는 방열패널의 스크린으로 내부의 벽을 구성한 것은 건축주와의 공동작품으로, 건축주의 성격이 나타나도록 하고 있다.

▶ 단 노리히코(團 紀彦)의 湘南信用金庫大口支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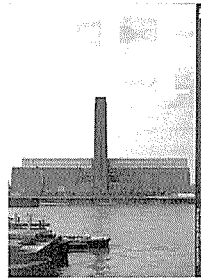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상호신용금고 지점사무실과 이와 독립된 갤러리를 한 건물 안에 계획하는 것이다. 이 갤러리는 통상 금융기관 본점에 마련된 고가품을 진열하는 갤러리와는 달리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신용금고의 성격상 지역사회에 개방하기 위한 시설로서 마련된 것이다. 총 3개층으로 구성된 건물에서 초기에는 독립된 갤러리를 최상층에 계획하려 하였으나, 접근의 문제 등과 좀더 다양한 구성을 위한 노력으로 3개 층의 전체 공간을 관통하는 안으로 확정되게 되었다. 사무소 공간을 관통하는 백색의 갤러리의 매스는 무표정한 사무실 공간에 변화를 주며 활력을 더하고 있다. 관통하는 갤러리의 매스는 외부에서도 이러한 구성이 파악되도록 하여 독립된 갤러리와 공존하는 금융기관의 건물임을 인지하도록 해 준다.

a+u

1999년 8월

이번 호에 소개된 작품들은 개축 내지는 증축의 형태로 이루어진 프로젝트들로, 유하 레이비스카(Juha Leivisk)의 하



유(Harju) 장례 예배당, 포스터 앤 파트너즈(Foster & Partners)의 新독일 의사당 라이히스타크(Reichstag), 쿠프 힘멜브라우(Coop Himmelb(l)au)의 SEG집합주택타워의 파사드증축과 가스탱크의 재이용계획, 헤르쯔그(Herzog)와 드 무론(de Meuron)의 테이트 갤러리 근대미술관, 알바로 시자(Alvaro Siza)와 로베르토 콜로바(Roberto Collov)의 살레미 역사지구 대성당과 엘리치아(Alicia)광장의 재생 등이 소개되었다.

■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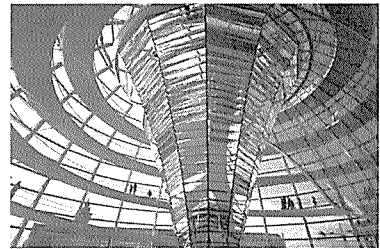
이번 호는 특집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유럽에서 진행된 개축 내지는 증축의 형태로 기존의 건물과 새로이 첨가된 부분의 결합이 보여지는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 있다. 기존의 건물이 역사적 유물이건 비교적 근대의 건물이건 간에 기존의 것에 손을 가해 조화로운 새것을 만들어낸다는 공통의 테마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유하 레이비스카(Juha Leivisk)의 하유(Harju) 장례 예배당(1997)



이 프로젝트는 마르티 발리칸가스(Martti V likangas 1893-1973)가 설계한 작은 장례 예배당을 증·개축한 것으로, 장례 참여객을 위한 방과 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을 증축하고 기존의 건물에 약간의 손질을 가한 것이다. 좌우대칭의 구성을 갖는 기존의 건물에 발리칸가스의 고전적이면서도 근대적인 건물의 경향을 참조하여 첨가된 건물이 놓여졌고, 예배당 내부도 기존의 단순하고 정결한 형태에 거의 손을 대지 않고 리노베이션이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건물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려는 작가의 태도가 엿보이고 있다.

▶ 포스터 앤 파트너즈(Foster&Partners)의 新독일 의사당 라이히스타크(Reichstag)



독일의 의회가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기면서 의회 건물로 舊제국의회의사당을 사용하게 되었다. 제국의회의사당은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아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중앙의 돔은 파괴되었으며, 내부의 재료는 수 차례 개수에 의해 원래의 모습과는 많이 변해 있었다. 세계 유수의 민주주의적 공론의 장에 뒤지지 않는 독일 연방 의회의 의의를 이해하고, 정치적 프로세스를 보다 접근이 용이하고 친근한 것으로 나타내기 위한 방향으로 구 의사당 건물을 개축하게 되었다. 설계경기에 붙여진 이 건물의 증축안은 미래지향적인 건물로서도 손색이 없도록 에너지 절약형이며, 환경친화적으로 구성되어질 것이 요구되었다. 당선안으로 확정된 포스터의 안은 유리의 돔을 씌워 그 하부의 의회 본회의실이 노출되도록 하였으며, 램프를 따라 돔을 순회하며 올라가도록 하여 아래의 의회와 주변의 외부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산책로로 개방되도록 하였다. 이 돔과 함께 건물의 옥상은 광장으로

개방되어 돔에 설치된 램프와 연결된 개방된 공공공간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유리 돔은 공기의 순환을 돕도록 계획되어 환경친화적 건물로서의 성격에도 걸맞도록 설계되었다.

▶ 알바로 시자(Alvaro Siza)와 로베르토 콜로바(Roberto Collov)의 살레미 역사지구 대성당과 엘리치아(Alicia)광장의 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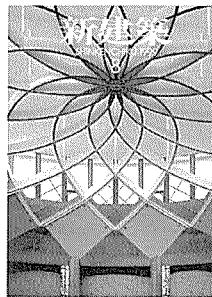


1982년 이래 시칠리의 살레미에서는 정치적 행정적인 곤란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핵의 수복이 천천히 진행되어왔다. 그 프로세스는 아랍민족이 기초를 놓은 가로가 형성된 구릉위의 중앙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중앙광장은 남부 게르만인의해 축조된 성곽, 노르만인의 교회 위에 재건되어 확장된 17세기의 대성당, 18세기의 궁전, 그리고 2~3층 규모의 집들에 의해 에워싸여져 있다. 행정상으로는 대성당과 광장의 수복을 각기 다른 프로젝트로 수행할 수 있었으나 두 개의 대상이 하나의 장소를 만들고 있음에 주목하여 단일 프로젝트로 진행하게 되었다. 재생의 방법은 파손된 건물을 그 상태에서 약간의 보수를 가하고, 주변에 첨가된 오브제들로 환경을 정비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新建築

1999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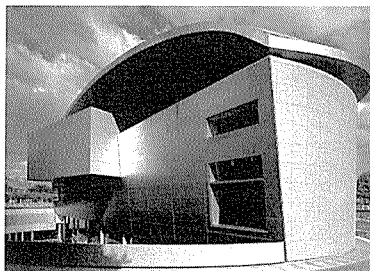
이번 호에 소개된 작품들은 쿠로카와 키쇼(黒川紀章)의 반고호 미술관 신관, 사카모토 아키라(坂本昭)와 사



사키 요지(佐佐木 葉二)의 白雨館, 아오키 시게루(青木 茂)의 우메(宇目)町청사, 이시다 토시아키(石田敏明)의 KOB 빌딩, 우노 스스무(宇野 亨)와 C+A(실라칸스 앤드 어소시에이츠)의 朝日新聞秋田지점 등이 소개되었다.

■ 작품

▶ 쿠로카와 키쇼(黒川 紀章)의 반 고호 미술관 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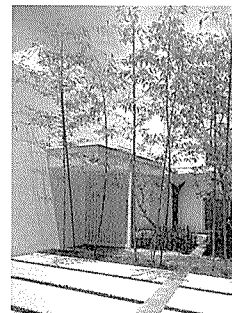
네덜란드의 건축가 게리 리트펠트의 마지막 작품으로 유명한 반 고호 미술관의 신관으로, 신관건물은 본관과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위치하고 지하에서 연결되도록 되어있다. 방문객은 본관으로 들어가 지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신관의 선큰가든을 둘러싸고 있는 라운지로 진입하도록 되어있다.

▶ 사카모토 아키라(坂本 昭)와 사사키 요지(佐佐木 葉二)의 白雨館

'白雨館'은 주택, 아틀리에, 학생을 겨냥한 원룸 임대실과 어린이실을 포함하는 복합건물로, 건축과 랜스케이프 디자

인의 합작품이다. 단정한 아이보리빛 벽들로 미니멀리즘을 연상시키는 의장은 치밀하게 계획된 정원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또한 외부 공간은 기느에 따라 3개 동으로 분리된 건물들이 교묘히 얹히면서 만들어내는 의도된 사잇공간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아오키 시게루(青木 茂)의 우메(宇目)町청사



우메町청사는 현 町長이 기존의 청사인 접지의 그린센터를 개축하여 신청사를 만들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작되었다. 당선 후 현상설계에 붙여져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기존 건물은 완공된 지 24년이 지난 건물로 어두운 분위기를 지닌 모더니즘 건물이었다. 에니메이션 '토토로'의 마을로 유명해진 마을의 이미지를 생각하여 좀 더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의 건물로 개축할 것이 요구되었다. 결과적으로 기존 건물의 입면 약간과 곡면으로 처리된 대회의실이 첨가되고 내부를 수선함으로써 프로젝트는 완성되었다. 기존 모더니즘의 건물과의 조화가 훌륭하여 경쾌한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처음부터 한 번에 계획된 건물처럼 보여지고 있다.

▶ 우노 스스무(宇野 亨)와 C+A(실라칸스 앤드 어소시에이츠)의 朝日新聞秋田지점

중앙의 오픈된 사무공간 주변을 슬로프로 감아주면서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